

제2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 일 시 : 2018. 6. 22. 9:30~12:30
- ◆ 장 소 : 기획상황실 6층
- ◆ 참석위원 : 총 11명(민간위원 9명, 내부위원 2명)
 - 민간위원 : 건국대 최배근, 서울대 공석기, 진일회계법인 김호열 , 중앙대 문재철, 상정회계법인 박상옥, 서울연구원 박은철, 서울연구원 신경희 , 보험연구원 안철경 시민경제연구실 오은주, 인천대 이영애 한국의류산업협회 황길룡
 - 내부위원 : 박대우 재정기획관, 백일헌 예산담당관
- ※ 간사 : 윤재삼 재정관리담당관, 보조금관리팀장 및 집중심의 대상사업 담당팀장(또는 주무관)
- ◆ 진행순서 : 위원 소개 → 회의 개최 → 폐회
- ◆ 상정안건
 - 지방보조사업 지속유지의 필요성 심의(경제·일자리, 건축·지역개발 분야)
- ◆ 회의결과
 - 심층심의 : 8개 사업 140억원(지속 : 7개 사업, 135억원 / 축소 : 1개 사업, 5억원)
 - 일괄심의 : 1차 평가결과 원안가결(112개 사업, 1,504억원)

위원 발언 내용

【09시 32분 개회】

〈간사〉

-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위원 소개)
- 지난해 추진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실본부국 자체평가한 결과에 대해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회의하는 자리임

- 금일 대상사업은 경제·일자리 분야, 건축·지역개발 분야 총 120개 사업, 약 1,600억원이며 이중 매우우수, 우수, 보통사업으로 평가한 사업 112건, 1,504억원은 일괄심의로 하고 심층심의 대상사업은 8건 약 140억원 정도임
-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신 민간위원 분들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음

〈○○○ 위원〉

- ○○○ 위원님 추천하고자 함

〈간사〉

- ○○○ 위원님을 만장일치로 하는 것이 좋은지?(위원 만장일치)

〈간사〉

- 그럼 ○○○ 위원님 오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개인 건별로 진행되는 것은 사업부서가 들어오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 이에 위원분들이 필요하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사업부서는 퇴장한 후, 이 사업에 대해 위원회에서 지속할지, 축소할지, 폐지할지 내부토론을 거쳐 의사결정 해주시면 됨

〈위원장〉

- 위원장을 맡은 ○○○이며 지금부터 2018년 제2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중 경제·일자리, 건축·지역개발 분야로 일괄심의 대상은 자체평가한 사업 중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사업 중 사업을 폐지하겠다고 한 사업 112개 1,504억원은 심의의 실익이 없어 일괄심의 하고자 함 이에 위원님 동의하시는지? (위원 전원 동의)
- 그럼 집중심의 대상임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 중에 사업을 계속하거나 축소하여 유지하겠다는 사업 8건에 140억 원에 대하여 지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유통활성화지구 지정.운영

<○○○ 위원>

- 어느 자치구가 열의를 가지고 소상공인과 협력해서 잘되고 있는지를 보고 타 자치구에서도 베치마킹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위원>

- 시가 좀 더 새로운 곳을 발굴해 더 나은 사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주무관>

- 말씀하신 것 중 **시장의 경우 상인역량 강화 프로그램 또는 약선요리 육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방문화축제 홍보캠페인 등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됨

<○○○ 위원>

- 이 사업이 자치구 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시는 이 사업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어떤 역할을 하는지?

<○○○ 주무관>

- 시는 행·재정적 지원이나 총괄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고 지원자문단을 통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음. 자치구에서는 상인협의체와 협의 후 실제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담당함

<○○○ 위원>

- 예산집행률 등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의 조율작업에 있어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구조적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프로그램의 내용 등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위원장>

- 더 이상 이의가 없을 경우 원안(지속)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음

2. 전통시장 이벤트 및 전통시장 박람회 안건설명

<○○○ 위원>

- 전통시장이 상당히 이용할만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요영 불편한 부분들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 어떨까 생각함

<○○○ 위원>

- 시장상인과의 신뢰, 서울시 행정에 대한 지지 등을 생각했을 때 보조금에 대한 회계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권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시장간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시장 밖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제도 등 시장환경 개선사업에 조금 더 역점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함

<○○○ 위원>

-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사업들이 다 당위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지원하면 좋지만 대형마트와의 경쟁시스템이나 환경 등 제도적인 부분을 서포트 하는 것도 제안드림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을 경우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음
-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음

3. 패션산업 기반 확충

<○○○ 위원>

- 이 사업이 전체예산이 2억 5천이면 공동 브랜드를 운영하는 데 많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장기적으로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 담당 팀장>

- 장기적으로 예산이 늘어나야 하는 사업인 것은 확실하며, 2억5천의 예산으로 작년에 브랜드 론칭에 많은 집중을 하였음

- 올해는 브랜드의 안정화단계이지만 단계적으로 봤을 때 지원이 늘어나야 하며, 브랜드자체가 활성화 되려면 독립매장을 가지고 판매하는 것이 필요하며 마케팅비용부터 홍보비용 등이 적극 지원되어야 하는 실정임

<○○○ 위원>

- 공동브랜드를 만든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마케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청년봉제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의류제조업체들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인데 일부 자치구의 성공사례 등에 대하여 적극적 홍보를 통해 다른 지역에도 규모가 있는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위원>

- 청년봉제인력 양성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이 사업과 동일한 사업인지?
- 또 추후 제조가 아닌 패션이나 다른 쪽으로 사업의 내부적인 전환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지?

<○○○ 담당 팀장>

-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기능인으로 공장에 들어가는 취업통로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어 봉제산업 자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으로 바뀌었을 때 거기에 맞는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에 대하여 고민 중에 있음
- 지금 당장은 실제 봉제공장 취업에 수요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패션봉제산업 자체의 활성화를 위해 Made In Seoul이라던가 패션혁신허브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음
-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주무관이 답변하겠음

<○○○ 담당 주무관>

- 별개의 사업임

<○○○ 위원>

- 자치단체 보조금의 경우 공모사업은 올해나 내년에 신청을 해오면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인지?

<○○○ 담당 팀장>

- 현 상태에서 고민을 좀 더 해야 하는 상황임

<○○○ 위원>

- 아카데미 등 교육에 청년들이 참여하여 스킬 등이 높아야 하는데 단순 취업으로 일로서만 하게되면 지속가능성이 낮고 전망도 밝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성수동의 경우 한양여전과 결합하여 추진된 사례도 알고 있는데, 이처럼 좀 더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서 협동조합 등과의 결합 등을 통해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이런부분을 좀 더 보여주는 사업에 지원했으면 좋겠음

<○○○ 담당 팀장>

- 맞는 지적임. 패션봉제산업의 육성과 청년들이 일자리에 들어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사업부서 퇴장)

<○○○ 위원>

- 패션산업 중 의류제조업의 기반이 가장 무너진 상태임. 디자인 산업 쪽은 전도유망하나, 전체적인 섬유산업, 패션사업 등을 봤을 때 의류제조업이 못받쳐주고 있는 상황임
- 환경들이 열악하다보니 서울시에서 해당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단순 민간자본보다는 브랜드 론칭 등 제조업체들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한다고 판단됨
- 또한 현장에 맞게끔 전문교육을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함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을 경우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음
-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음

4. 농부의 시장 운영

<○○○ 위원>

- 예산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한강문화장터를 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16년에는 한 것으로 나와있음. '17년에 못하게 된 이유가 민원 때문에 그러한 것인지? 또 16년대비 17년 예산이 증가한 이유?

<○○○ 담당 팀장>

- '16년에 없던 자치구 행사비가 '17년에 추가되어 증액되었음
- 작년 한강에서 5개소를 하였는데 계속 민원이 발생하여 '18년에는 미추진하고 있음

<○○○ 위원>

- 주민원은 무엇인지?

<○○○ 담당 팀장>

- 한강의 매점 또는 주변 상권의 문제가 있었고 세빛섬에서는 토요일날 개최하다보니 주차장 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 위원>

- 일반 직거래장터와 차이점은?

<○○○ 담당 팀장>

- 각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각 지역을 대표하는 농가의 제품과 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로 수시 안전검사도 진행했음
- 타 직거래장터는 판매위주이나 농부의 시장의 경우 서울시민들에게 농촌의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음

<○○○ 위원>

- 예산의 주된 비용은 장소확보 비용인지?

〈○○○ 담당 팀장〉

- 서울시 장소로 하기 때문에 장소확보비용은 거의 안들며, 주로 설치비, 전기를 들어오게 하는 발전차, 인건비, 이벤트 비용등임

〈○○○ 위원〉

- 보조사업자의 자체적으로 운영이 어려워 서울시가 지원하는건지?

〈○○○ 담당 팀장〉

- △△△의 경우 운영은 되고 있으나, 보조금 지원으로 좀 더 확산시키고 연중 일정기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되고 있음

〈○○○ 위원〉

- 서울시의 회계증빙서류는 굉장히 깐깐한 것으로 알고 있음. 사전에 회계집행 방법 안내나 작성방법을 얘기해주고 있는지?

〈○○○ 담당 팀장〉

- 예산회계의 집행이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해당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음

〈○○○ 위원〉

- 오히려 깐깐해서 사업에 새롭게 참여하려는 사람이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함. 회계의 투명성을 유지하되 새로운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한 일일수도 있다고 판단함

〈○○○ 위원〉

- 농촌은 2월부터 12월까지 농사품목이 다른데 상호방문프로그램 등 농촌과 지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새로운 사람이라기보다 자라는 곳을 계속 연계하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어떨까 제안함

〈○○○ 위원〉

- 성과목표에 대한 결과를 판단할 때 개최횟수 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 했느냐가 중요한 평가근거가 될 것 같음

<○○○ 담당 팀장>

- 의견에 동의함. 판매액의 규모보다 참가한 농부의 수가 중요한 것 같음. 판매가 잘 안되는 곳에는 참가농부가 안오게 됨. 다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개최 횟수와 일정부분 연관이 되다보니 그 평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추후 목표설정과 평가시 좀 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음

(사업부서 퇴장)

<○○○ 위원>

- 농부의 시장 사업 자체가 서울시민에게 농촌에 대한 친화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시작되는 의미에서 경제적인 수익성보다는 사회적인 편익이 많이 강조되는 사업으로 보임
- 예산이 주로 설치비 등으로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 농부의 시장 이벤트를 원활히 하기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까는데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해당 사업은 지속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을 경우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음
-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음

5. 한국폴리텍 서울강서캠퍼스 지원

<○○○ 위원>

- 건물사용료를 왜 서울시에서 내는지?

<○○○ 담당 팀장>

- 서울직업훈련 시설이 4개가 있는데 전부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운영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음

〈○○○ 위원〉

- 강서지역에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역균형을 맞추기 위해 그지역에서 폴리텍에 새로운 건물을 짓기보다 그것을 이용하는게 아닌가 판단됨

〈○○○ 위원〉

- 조금 헛갈리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기능사 과정사업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건물사용료도 고용노동부가 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담당 팀장〉

- 고용노동부가 당연히 사용료를 내야하지만, 협약을 체결하여 서울시가 지원하도록 하였고, 해당 돈을 지원하면 다시 서울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옴
- 기능사 과정은 1년과정만 지원하고 있고, 7개 기능사 과정이 있음. 정원이 255명이고 이중 식비는 155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중식부분만 지원하고 있음

〈○○○ 위원〉

- 중식비 지원단가 상향 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부연설명이 필요함

〈○○○ 담당 팀장〉

- 직업교육훈련 4개소는 3,300원씩 지원하다가 금년부터 3,500원으로 인상, 그러니 여기는 아직 2,800원으로 지원되고 있음

(사업부서 퇴장)

〈○○○ 위원〉

- 이사업은 중식비 지원의 단순한 사업임.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역이라든지 참여해서 역량개발을 하는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사람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현실적 지원이 중식비라고 하는데 사실,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폴리텍도 지역과 결합하여 지역의 취업과 연결된 고용의 연계라든지 이런 것을 모색하는 것을 권유하고 싶음. 폴리텍 대학이 강서지역에 있으면 강서지역에 일정부분 기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단순 식비 지원이 아니라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고 판단됨

〈○○○ 위원〉

- 예를들어 교육을 오전부터 오후까지 받으면 중간에 급식지원을 받는데 그런 방식으로 점심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단가가 2,800원에서 3,000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 식비와 관련해서 예상급식수 대비 실급식 비율이 낮다고 했는데 음식이 부실해서 그럴 수 있다고 봄. 따라서 급식비 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위원장〉

- 급식비 지원으로 제안된 사업이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그레йд 또는 대체사업은 별개의 안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은 급식비 지원에 한정된 사항으로 이 범위 내에서 일단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위원〉

- 직업훈련생에게 주는 일비가 적음 중식비라도 보조하는 것으로 생긴 사업으로 판단되기에 식사비를 가지고 논란이 될 얘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위원장〉

- 추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이라면 그때가서 사업을 중단하면 되는 것이고, 이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해 거수를 통해 결정하겠음
- 과반 이상으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음

6.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 위원>

- 한국노총 지원에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사업이 지원액의 대략 50%정도가 되어 보이는데, 근로자 자녀라고 하면 노총 직원들의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발하는 것인지?

<○○○ 담당 팀장>

- 전체 다 해당이 되며, 기본적으로 산별노동조합에서 추천을 받아 자체적으로 장학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음

<○○○ 위원>

- 이 양대 노총 외에도 노동단체, 노조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지? 서울시 지역 노조에 문호를 개방해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듭

<○○○ 담당 팀장>

-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단체에 지원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단체가 한정되어 있음. 현재 다른 일반 산별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고 있음

<○○○ 위원>

- 노동조합에 대해 과거 오랜시간 지원을 했는데 그동안 다른 이슈는 없었는지? 예를들어 선거법 관련이나 이런 것들..

<○○○ 담당 팀장>

- 지원의 근거가 있고, 서울시 조례로 정해져 있으며, 예산편성과정에서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편성된 사업으로 선거법과 관련된 이슈 등은 없음

(사업부서 퇴장)

<○○○ 위원>

- 모니터링 즉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에 따르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됨.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 판단을 통해 향후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20년 넘게 진행했던 사업이고 또 나름 비중이 있는 부분인데 위원회에서 안된다 결정을 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됨

<○○○ 위원>

- 사업의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 근로자 자녀 장학금의 경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위원>

- 동의함. 집행이나 정산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위원장>

- 서울시에서 모니터링이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지속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분은?
- 통과된 것으로 정리함

7.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공간지원

<○○○ 위원>

- 사회적경제 공간인데 건물 하나에 활동하는 단체들이 같이 들어가는지?

<○○○ 담당 팀장>

- 매장도 들어가고 창업공간도 들어감

<○○○ 위원>

- 사회적경제 공간이 화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 담당 팀장>

- 사회적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의 공간이 필요한데 사실 창업 초기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감. 그래서 일단 그 단계에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관에서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그분들이 창업하고 일정궤도에 올라가면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요는 상당히 많음

<○○○ 위원>

- 사회적 경제 공간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그 협력하는 클러스터 내용들이 멋있는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 담당 팀장>

-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심사를 할 때는 운영계획이라든지 첫째는 입주자 조직에 대해서 선정에 대한 투명성, 그다음에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필수요건임. 즉 어떤 외형보다는 운영에 있어서 내실을 기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음

<○○○ 위원>

- 조성된 공간의 소유권은 자치구인지?

<○○○ 담당 팀장>

- 자치구임. 주로 인테리어 비용 일부를 지원해줌

<○○○ 위원>

- 이 건물 자체가 화려하지는 않음. 서울시가 어느 정도는 일정한 토지를 확보하려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결국 일단 구청 입장에서는 사회적경제 공유 관련된 그런 자산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외형을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 실제로 안에 어떻게 내용을 채워갈 것인가, 그런 것도 공간심사를 같이 하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음

<○○○ 위원>

- 선정된 경우 민간건물에 임대해 있는 경우는 있는지?

〈○○○ 담당 팀장〉

- 민간건물에 지원한 것은 없음

〈○○○ 위원〉

- 자부담 퍼센트가 있는지?

〈○○○ 담당 팀장〉

- 자부담 퍼센트는 없고 최대 8억을 지원하는데 보통 건축비가 작게는 약 72억원이며 토지비용까지 높음. 따라서 자치구 부담이 월등히 큼

〈○○○ 위원〉

- 공간지원에 대한 실적에 대비 구체적인 어떤 효과나 성과는?

〈○○○ 담당 팀장〉

- 공간에 대한 점검을 나갔을 때 공간활용, 사용적합성, 공간이용, 입주업체 선정, 4개의 항목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지금 걱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됐음
- 은평 같은 경우는 시설 노후화에 대한 부분, 유지보수문제, 그다음에 동작 같은 경우에는 경제운영 주체 간에 불협화음, 관악 같은 경우는 접근성에 대한 입지조건, 이런 부분들이 돌출
- 우수사례는 서대문의 경우 SH공사 건물인데 SH공사가 행복주택 하다가 그 사업이 중단되면서 남는 공간을 자치구에서 그것을 장기임대하여 사회적경제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사례인데, 4층 규모로 1층은 매장 해서 입주기업도 한 36개의 기업 정도가 들어가 있고 아주 상당히 모범적으로, 해외에 사례로도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음

(사업부서 퇴장)

〈○○○ 위원〉

-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를 만들려고 하면 어떤 허브가 필요함. 지역구별로 허브를 만들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계속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 위원〉

- 허브와 클러스터의 개념은 다름. 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 제한적으로 생각을 하고 더 확장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그럼 공간을 계속 늘리는 것인데, 지자체에서도 공간 요구를 더 하거나 허브로서 그냥 제안된 이 정도로 해서 더 확장되게끔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위원장〉

- 지속에 찬성하시는 분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람
-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것으로 정리함

8.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및 품질등급제

〈○○○ 위원〉

- 현재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 담당 팀장〉

- 아님. 시스템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온라인투표를 활용하는 그 업체가 중앙선관위에 a이 있고요, 그다음에 b에 이알림이 있고, c에 이마을이 있고, d에 아파트동이 있는데,

〈○○○ 위원〉

- 그것을 사용하는 비용을 서울시에서 대주는게 아닌지?

〈○○○ 담당 팀장〉

- 맞음. 전액지원이 아니라 사용액이 만약 1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투표율 50%에서부터 70% 이상으로 따져 가지고 차등 있게 지급하고 있음

〈○○○ 위원〉

- 실태조사를 하러 나가서 실질적으로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가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아파트단지 내에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으면 서울시에서 나가고 점검을 한 다음에 그것 자체를 아파트 위에다가 올려야 되는, 그러니까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음

<○○○ 담당 팀장>

- 실태조사는 비용지원은 없음. 온라인투표만 해당됨. 위원님들께서 지금 두가지 사업을 보고 있으며, 하나는 실태조사에 따른 외부전문가 수당이며 또 하나는 온라인투표를 사용했을 때의 거기에 대한 지원금임.
-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감사 차원에서 나가서 해서 그 결과를 자치구에다가 통보를 해 주면 자치구 자체에서 이것을 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한다든가 시정조치를 내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사업임

<○○○ 위원>

- 분쟁이 생기는 곳에 실태조사를 나가서 조정을 해주는데, 분쟁을 해결해 주면 본인들이 앞으로 정보를 완벽하게 공개를 하겠다라는 조건 자체가 붙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담당 팀장>

- 정보공개 하는 항목은 법령이나 규정으로 제도화되어있고, 맑은아파트라는 자체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비리를 없애고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임

<○○○ 위원>

- 온라인투표 같은 경우는 주요한 의사결정을 온라인투표로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선정된 대표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입주자대표를 뽑는 데에만 쓰이는 것인지, 아니면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인지?

<○○○ 담당 주무관>

- 서울시 공동주택규약 준칙 48조에 그 내용을 쓸 수 있는 항목이 나오는데 임원선출이라든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 사용가능함

〈○○○ 위원〉

- 우리가 동대표를 뽑을 때 선관위에 기본적으로 의뢰할 수 있을텐데 온라인투표도 같이 활용할 수 있고, 그런데 온라인투표를 사용하는 것이 평균 2회밖에 안됨. 그리고 단지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해서는 투표를 활용하는 빈도가 너무 낮다는 생각을 하게되고 이에 비해 예산은 매년 사용하게 됨
- 그래서 이것을 좀 방식을 다르게 하거나 해서 지금 5개 업체를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경쟁을 붙여 가지고 입찰을 통해서 가장 싼 업체를 지속적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담당 주무관〉

- 해당의견도 동의함. 다만 지금 현재 5개 업체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고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개인정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암호모듈을 미래창조과학부라든가 국가정보원의 공인인증을 받은 그 업체가 5군데라는 것이며, 그 아파트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어느 단가가 맞는지는 그 업체하고 아파트 간에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그쪽에 대해서는 관여는 안 하고 있음

(사업부서 퇴장)

〈○○○ 위원〉

- 각 단지마다 투명성, 특히 회계의 투명성이 너무 약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한 측면이 있으나 진짜 문제가 되는 단지만 나가는 것으로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함
- 이런 갈등관리와 관련된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주민들의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주로 우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가는 보는 것은 대부분 회계위주이며 계획수선이라든가 내지는 주민들의 관리참여율이라든지, 관리참여의 통로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은 보기 쉽지 않음
- 대부분 단지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권을 가지고서 모든 사항을 다 처리하기 때문이며, 우리 서울시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주민들에게 많은 공고를 하도록 내지는 내용을 알려주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됨
- 실제 업무는 자치구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하고 있는 직원은 한 명밖에 없고, 많은 민원 등으로 인한 격무로 인해 1년도 제대로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결국 좀 더 단지 내에서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함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을 경우 거수를 통해 결정하겠음 사업 계속, 축소, 폐지 중 계속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람(2명)
- 축소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람
- 축소가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축소로 결정하도록 하겠음
- 심의의결서에 서명 후 심의위원회는 마치도록 하겠음

【12시 30분 폐회】

제3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 일 시 : 2018. 6. 22. 14:00~17:00
- ◆ 장 소 : 기획상황실 6층
- ◆ 참석위원 : 총 9명(민간위원 9명)
 - 민간위원 : 숙명여대 장윤금, 중앙대 강진숙, (주)비온뒤 김성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영준, 동덕여대 이상섭, 청운대 박정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변종임, 문화재청 장영기, 동국대 장하용
 - ※ 간사 : 윤재삼 재정관리담당관, 보조금관리팀장 및 집중심의 대상사업 담당팀장(또는 주무관)
- ◆ 진행순서 : 위원 소개 → 회의 개최 → 폐회
- ◆ 상정안건
 - 지방보조사업 지속유지의 필요성 심의(문화·관광, 행정·교육)
- ◆ 회의결과
 - 심층심의 : 13개 사업 145억원
(지속 : 6개 사업, 17억원 / 축소 : 5개 사업, 97억원 / 폐지 : 2개 사업, 31억원)
 - 일괄심의 : 1차 평가결과 원안가결(256개 사업, 3,126억원)

위원 발언 내용

【14시 00분 개회】

〈간사〉

-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위원 소개)
- 지난해 추진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실본부국 자체평가한 결과에 대해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회의하는 자리임

- 금일 대상사업은 문화·관광, 행정·교육분야 총 269개 사업, 약 3,271억원이며 이중 매우우수, 우수, 보통사업으로 평가한 사업 256건, 3,126억원은 일괄심의로 하고 심층심의 대상사업은 13건 약 145억원 정도임
-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음. 금일 회의에 참석하신 민간위원 분들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음

〈○○○ 위원〉

- ○○○ 위원님 추천하고자 함

〈간사〉

- ○○○ 위원님을 만장일치로 하는 것이 좋은지?(위원 만장일치)

〈간사〉

- 그럼 ○○○ 위원님 오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개인 건별로 진행되는 것은 사업부서가 들어오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 이에 위원분들이 필요하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사업부서는 퇴장한 후, 이 사업에 대해 위원회에서 지속할지, 축소할지, 폐지할지 내부토론을 거쳐 의사결정 해주시면 됨

〈위원장〉

- 위원장을 맡은 ○○○이며 지금부터 2018년 제3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음. 2017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중 경제·일자리, 건축·지역개발 분야로 일괄심의 대상은 자체평가한 사업 중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사업 중 사업을 폐지하겠다고 한 사업 256개 3,126억원은 심의의 실익이 없어 일괄심의 하고자 함 이에 위원님 동의하시는지? (위원 전원 동의)
- 그럼 집중심의 대상임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 중에 사업을 계속하거나 축소하여 유지하겠다는 사업 13건에 145억 원에

대하여 지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음

1.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 안건설명

<○○○ 위원>

- 핵심시정기조인 혁신과 협치의 자치구 확산 분위기라든가, 민중심으로 플랫폼이 운영되다 보니 이게 성과지표상으로는 딱 일반적인 행정지표하고는 달리 나오지가 않은 것 같아서 사업축소 의견을 제시함

<○○○ 위원>

- 아직 지역사업들이 자리잡기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들이라서 조금은 더 육성하는 측면에서 지켜봐야 될 사업으로 판단되고 폐지보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 축소를 검토할 수 있지만 사업 자체는 지속을 했으면 함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을 경우 실무부서에서 평가한대로 사업을 축소한 것으로 결정함

2.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 안건설명

<○○○ 위원>

- 올해 1년차 사업이고, 청년과 관련된 사업은 최근 이슈가 되는 측면이 있으며 취업률과도 관련이 되어 있어 사업지속으로 판단됨

<○○○ 위원>

- 위와 같은 사업의 경우 추진이 되면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폐지될 경우 상당히 부작용이 큰 것으로 보임
- 사업성과를 보면 20여개의 업체가 활동중인데 이런 사업에 대한 폐지는 당장 어려워 보이나 2년차 사업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의견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위원>

-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형태의 청년 대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추후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제기될 것으로 판단되며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 판단됨

<○○○ 위원>

- 초기사업이니 만큼 지금 이 혜택으로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속사업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평가를 잘 못 받았는데 예산확대를 한다라는 것은 시청 안에서 부담이 될 테니 확대보다는 그냥 지속으로 유지하는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위원>

- 그러나, 평가를 통해 미흡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대로 유지해주는 것은 우리 쪽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준 것임 그런데 경각심 차원에서 조금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증액은 안 시켜주는 차원에서는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위원>

- 사업축소에 동감함

<○○○ 위원>

- 실질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높이는 차원에서 사업축소를 건의함

<위원장>

- 해당 안건에 대해 축소의견인 경우 손을 들어주시기 바람
- 과반 이상이므로 축소로 정리하겠음

3. 서울까치서당 운영 안건설명

<○○○ 위원>

- 평가점수가 81점으로 우수인데 왜 미흡으로 들어왔는지?

<간사>

- 해당점수는 사업부서에서 부여한 점수이고, 실국에서 조정되어 미흡으로 올라온 사업이라 점수와 안맞는 부분이 있음

<○○○ 위원>

- 아웃풋, 아웃컴이 좋아 지속의견이라고 판단하는데, 사업부서에서 다른 신규사업 등으로 할 계획이라면 여기서 검토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위원장>

- 상황이 바뀌어 부서에서 다른 사업으로 하겠다고 결정한 것인데 잘 결정한 것 같고 사업폐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음

4.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 안건설명

<○○○ 위원>

- 미흡사업으로 올라왔지만 안건설명시 해당 국에서 이 사업을 폐지해도 되겠다는 결론이 나왔다면 폐지로 정리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위원장>

- 이견이 없다면 폐지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음

5. 근현대사 기념관 운영 지원 안건설명

<○○○ 위원>

- 근현대기념관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 서울시 재정지원이 없으면 사실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판단됨
- 단지 우려점들이 있는 부분이 관리운영상에서 약간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사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집중도가 조금 너무 높은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임 예를 들면 음악회 같은 것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투입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관리개선에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적정성 부분을 봤을 때 이 사업은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그리고 성과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객수가 사실상 전년 대비해서 한 50% 증가했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일수 대비해서 보면 한 2, 30% 정도는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정한 성과목표치 10% 상승분을 월등히 초과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위원〉

- 사실 예산구조라는 것이 상당히 경직성이 있는데 내년 임시정부 100주년이고 3.1운동 100주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근현대적인 이슈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 그런 부분에서 사업적 효과 등 파급력이 일정부분 있을 것으로 보임

〈위원장〉

- 투표를 진행하겠음
- 유지에 동의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람(없음)
- 축소에 동의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람
- 폐지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람
- 축소가 6명 이상 과반수 이상으로 축소로 가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6. 서울 국제음악콩쿠르 지원 안건설명

〈○○○ 위원〉

- 본 사업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국내외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지속하자는 의견임
-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콩쿠르사업이 지금 현 사업외에는 없고, 성격상 지금 동아콩쿠르인데 각 장르별로 있던 것이 클래식 쪽만 해서 서울 국제음악콩쿠르 음악제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계가 된 것 같아 보임

〈○○○ 위원〉

- 사업의 취지가 좋으나 당장 지원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축소하여 서울시에서 지원을 점차 줄여나가자는 의견임

〈○○○ 위원〉

- 1억5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서울시 이름으로 국제콩쿠르를 한다는 것은 운영의 차원은 다른 면이라고 하더라도 예산 대비 굉장히 효율성은 높다고 판단됨

〈위원장〉

- 다른 분들의 이견이 없다면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함 (이견없음)

7.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안건설명

〈○○○ 위원〉

- 해당사업의 목표설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보임 전문 미술인을 양성하여 향후 취업까지 가능하도록 한다고 한 설정 자체가 전문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장애청소년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목표가 아닌가 판단됨
- 역량의 개발도 단지 미술역량이 아니라 소통역량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미디어아트라든지, 일상적으로 지금 디지털미디어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미술분야를 확대를 제안함
- 캐리커처 그리기, 만화 구성하기, 상상력 교육, 이것은 굉장히 장려할 프로그램으로 보이며 이 부분에 오히려 초점을 맞춰주면서 웹툰이라든지 장애청소년들이 직접 겪고 체험한 것들을 형상화하고 상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만화라든지 웹툰의 제작 가능성도 열어두시면 조금 더 지금의 청소년 미디어환경에도 부합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함

〈○○○ 위원〉

-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미술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다만, 수행기관이 공모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 수행기관의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미술교육의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인력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역량검토 기준을 조금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위원〉

- 굉장히 의의 있는 사업이지만 여기에 목표로 하는 것으로는 1억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전문적인 것보다 일반적인 것을 추구할 때 오히려 더 효과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추후 사업을 지속하게 될 경우 좀 더 지표 수정하여 명확하게 하도록 의견제시함

〈○○○ 위원〉

- 동의하는 바임. 주요성과 및 평가의견에서도 심화교육이 부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심화교육을 할 수 있는 수행자가 제대로 있는지, 그리고 1주일에 한 번의 심화교육이 과연 유기적인 시간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심화교육 차원이 아니라 일상적인 치유 차원이 아닌 자기 표현능력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목표설정을 수정하면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됨 안 그러면 여전히 점수는 올라갈 수가 없는 상태로 지속될 수에 없을 것으로 생각됨

〈○○○ 위원〉

- 저는 이게 특수분야인데 일반 교육지원사업이랑 같이 잣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이 사업을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함.
- 교육비 투자 대비 효과를 볼 때도 일반학습자들보다 장애학습자는 한 10배 예산을 더 지원을 해야지만 그 성과를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음.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장까지 그 학습자를 데려오고 지원하는 많은 부대비용들이 들기 때문임.

-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지금의 일관된 하나의 평가지표로 보면 계속 해마다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이사업은 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위원〉

- 지속의견이나 제한을 걸어주지 않으면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을까 우려됨(전문성 강조 등)

〈위원다수〉

- 지속에 동의함

〈위원장〉

- 지속의견으로 정리함

8. 서울 세계불꽃축제 지원 안건설명

〈○○○ 위원〉

- 세계불꽃축제는 광범위한 행사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곳에서 안전과 질서, 서울시의 쾌적함 유지라는 부분에서 이정도의 예산은 지속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위원다수〉

- 지속에 동의함

〈위원장〉

- 지속의견으로 정리함

9. 사직대제 및 환구대제 지원 안건설명

〈○○○ 위원〉

- 작년에 서울광장 등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진행을 못한 사항이고, 이 사업이 98년부터 지속된 사업이고 무형유산이라는 전통문화 계승과 함께 중요한 문화관광자원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위원다수>

- 지속에 동의함

<위원장>

- 지속의견으로 정리함

10. 미술관 활성화 지원 안건설명

<○○○ 위원>

- 미술관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사업목표라던가 방향성 부분의 세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위원>

- 동의함. 이 미술관 활용한 보편적인 교육차원의 지향점은 좋음. 하지만 좀 더 포인트를 세분화 할 필요가 있음

<○○○ 위원>

- 최근 3년 동안 심사기준도 엄격하게 하고, 또 관련된 단체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노력을 하다보니까 거꾸로 선정된 기관수도 줄어들고, 예산을 더 쓰지는 못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사업 자체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하지만 다 쓰지 못할 것을 예상해서 축소한다면 지속 또는 축소의견으로 함

<위원장>

- 사업부서에서도 일부분 축소의견을 냈으니 축소로 가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음

11. 지속가능한 마을관광 상품 개발 운영 안건설명

<○○○ 위원>

- 해당 사업에 세 가지 차원의 세부사업이 있는데 성과지표를 내세우면 공정관광은 굉장히 질적인 지표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상품개발은 긍정적인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나와야 되는 부분임
- 이 세 가지의 어떤 사업들이 하나에 묶여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예산들을 구분해 가지고 사업들을 별도로 진행하시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인 것으로 보임

<○○○ 위원>

- 해당 사업은 지속가능한 운영을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사업을 좀 더 줄여서 지원하고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위원>

- 사업축소 의견에 동의함. 연구용역비의 경우 효용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축소 의견을 부여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위원장>

-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거수로 가도록 하겠음. 유지. 축소.
- 거수결과 축소로 결정되었음

12.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안건설명

13. 축구교실 운영 안건설명

<○○○ 위원>

- 해당 사업은 파급력도 좋은 부분이 있어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다른 의견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위원>

-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의 경우는 초등학교 3~6학년 대상을 중심으로 하되 소외계층, 새터민, 다문화층도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정작 사업 운영과정에서는 그러한 목표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정 및 개선을 권고함

<○○○ 위원>

- 오히려 사업을 확대해도 좋겠다고 생각함. 해외 같은 경우는 청소년은 스포츠를 많이 시켜야지 범죄가 줄어들기 때문에 힘을 많이 쏟게 하고, 그런 것에 굉장히 주력을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고 판단함

<○○○ 위원>

- 여중생 1학년~3학년 대상으로 꿈나무 어린이 야구교실을 운영할 것도 목표로 삼았지만 정작 여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빈약함
- 청소년이라든지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은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남학생, 여학생별로 맞춤형 스포츠사업을 운영할 것인가, 그것은 이미 선진적인 나라들에서는 성별 구분에 따른 스포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차원에서도 여중생이나 여학생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도 조금 더 구상해 볼 필요가 있음

<위원장>

-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경우 유지로 정리하겠음(이견없음)

【16시 48분, 폐회】

제4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 일 시 : 2018. 6. 26. 9:30~12:00
- ◆ 장 소 : 기획상황실 6층
- ◆ 참석위원 : 총 7명(민간위원 7명)
 - 민간위원 : 서울시립대 이상석, 서울여자간호대 김경희, 단국대 김기량, 서울시립대 김영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태진, 한양대 정진욱, 선문대 한규희
 - ※ 간사 : 윤재삼 재정관리담당관, 보조금관리팀장 및 집중심의 대상사업 담당팀장(또는 주무관)
- ◆ 진행순서 : 위원 소개 → 회의 개최 → 폐회
- ◆ 상정안건
 - 지방보조사업 지속유지의 필요성 심의(보건, 환경)
- ◆ 회의결과
 - 심층심의 : 12개 사업, 63억원
(지속 : 6개 사업, 36억원 / 축소 : 3개 사업, 19억원 / 폐지 : 3개 사업, 8억원)
 - 일괄심의 : 1차 평가결과 원안가결(119개 사업, 1,121억원)

□ 위원 발언 내용

【09시 32분 개회】

〈간사〉

-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위원 소개)
- 지난해 추진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실본부국 자체평가한 결과에 대해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회의하는 자리임

- 금일 대상사업은 보건·환경 분야 총 131개 사업, 1,184억원이며 이중 매우우수, 우수, 보통사업으로 평가한 사업 119건, 1,121억원은 일괄심의로 하고 심층심의 대상사업은 12건 약 63억원 정도임
- 위원장을 호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신 민간위원 분들 중에 호신으로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음

<○○○ 위원>

- ○○○ 위원님 추천하고자 함

<간사>

- ○○○ 위원님을 만장일치로 하는 것이 좋은지?(위원 만장일치)

<간사>

- 그럼 ○○○ 위원님 오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개인 건별로 진행되는 것은 사업부서가 들어오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 이에 위원분들이 필요하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사업부서는 퇴장한 후, 이 사업에 대해 위원회에서 지속할지, 축소할지, 폐지할지 내부토론을 거쳐 의사결정 해주시면 됨

<위원장>

- 위원장을 맡은 ○○○이며 지금부터 2018년 제2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음. 2017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중 경제·일자리, 건축·지역개발 분야로 일괄심의 대상은 자체평가한 사업 중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사업 중 사업을 폐지하겠다고 한 사업 119개 1,121억원은 심의의 실익이 없어 일괄심의 하고자 함 이에 위원님 동의하시는지? (위원 전원 동의)
- 그럼 집중심의 대상임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 중에 사업을 계속하거나 축소하여 유지하겠다는 사업 12건에 63억 원에 대하여 지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음

1. 시민건강포인트사업 안건설명

〈○○○ 위원〉

- 고혈압·당뇨에 대한 부분이 2차 병증이나 진료비 감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국가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단 인지율이 높은 편이지만 치료나 조절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잘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사업이 중요하다는 판단됨
- 지역 내 의료기관을 활용한 부분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이 높은 사업일 수도 있다는 부분에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건강포인트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동영상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정교한 도구라든지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음
- 기존에 하고 있는 대사증후군 사업하고의 연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또 실제 이 사업이 시민들의 인식을 위한 홍보에 대한 부분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 인식이나 인지도조사를 해 보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사업홍보에 대한 전략 같은 것을 세웠으면 함

〈○○○ 위원〉

- 집중심의에 올라온 사업이 다 시행할 가치가 있고 좋은 사업들일텐데 예산이 정해져 있어 12개를 다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음

〈위원장〉

- 12개 사업의 유형 및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종합하다보면 오히려 혼선이 생길 수도 있어 하나하나씩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됨

〈위원장〉

- 거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음
- 지속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람. 세분 거수하였음

- 축소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람. 4분이 축소엔 대해 동의하여 사업축소로 결정함

2. 우리아이 건강관리 의사 사업

<○○○ 위원>

- 생애초기 건강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됨
-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상담의 내용들을 분석을 해 보시고 집중과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사실 초1과 6학년을 선택했던 이유가 명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상담서비스를 기본으로 갖고 있는데 1차의료기관 의사선생님들께서 상담에 대한 역량, 상담에 대한 다양한 범위 등 전문적인 상담에 대한 부분의 서비스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사업축소 의견임

<위원장>

- 거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음
- 사업축소 의견이 나와 사업축소와 폐지를 놓고 거수로 정하겠음
- 네 분이 사업축소에 동의
- 세 분이 사업축소에 동의
- 사업축소로 결정됨

3.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 위원>

- 서울시가 50대를 타겟으로 하는 평생교육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신체적인 문제도 필요하지만 정신과적인 문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저도 서울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제가 정신과 병원의 문턱을 넘어가는 것이 일반사람들이 일단 들어가는 것이 불편함이 있는 것도 사실임
- 이 인식개선사업과 함께 편견에 대한 것을 접촉을 하면 편안하게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은 앞으로 특히 노인자살률이 지금 급증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곡선을 끊어야 되는 의미에서 타게팅은 적절하다고 보임

〈○○○ 위원〉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폐지 의견임. 우울증 환자로 한 궁극적인 목표의 파악이 어려움
- 자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주체층으로 청소년하고 노인들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타겟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전체적인 국민의 정신건강을 관리를 하고자 한다면 굳이 50대만 타겟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은 2, 30대만 해도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많고 4, 50대까지도 확대가 돼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50대에 한정한다는 것은 제한적인 부분으로 보임
- 서울시에서 자살예방에 관한 서울시 나름대로의 분석을 통한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위원장〉

- 거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음
- 사업의 지속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람. 한 분
- 사업 축소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람. 한 분
- 사업 폐지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람. 네 분
- 거수하지 않은 위원님 한분은 어느쪽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위원〉

- 사업 축소로 하겠음

〈위원장〉

- 이 사업은 사업의 폐지로 결정되었음. 목적을 좀 더 뚜렷이하고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고, 그러나 이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으로 판단됨

4. 건강도시 환경조성

〈○○○ 위원〉

- 주민들의 건강도시 조성사업은 주민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의미라고 생각함
- 그러나 사업의 방향성을 좀 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건강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대부분 보면 시에서 하는 사업들의 내용이 주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고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국민들한테 뭔가를 자체적으로 해 주기를 원하는 방향 설정은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사업의 방향성을 좀 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건강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대부분 보면 시에서 하는 사업들의 내용이 주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고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국민들한테 뭔가를 자체적으로 해 주기를 원하는 방향 설정은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대부분이 소모임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과연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인지. 기존에 정부에서 하는 사업 내지는 시에서 하는 사업내용을 소개해 주는 것, 그리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금연 아니면 흡연 이런 쪽 내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위원장〉

-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폐지에 찬성할 경우 거수해주시기 바람
- 해당사업은 만장일치로 폐지되는 것으로 결정하겠음

5. 아시아 음식문화 진흥

<○○○ 위원>

- 일단 실·본부·국에서 자체평가가 62점으로 좀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음
- 해당 사업에 1억 4천을 투자해서는 얻는 성과 및 효과성 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음. 따라서 폐지의견

<위원장>

- 추가의견이 없을 경우 거수에 들어가도록 하겠음
- 만장일치로 사업폐지

6. 인수공통 전염병 관리 강화

<○○○ 위원>

-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시민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구별로 4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됨
-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서 예산이 진짜 몇 억 수준이 되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뭔가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판단됨

<○○○ 위원>

- 관리의 중요성 및 방역활동의 효과성은 확보가 된 사업으로 예산집행률이 90%이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성을 위한 전략을 재수립을 해서 특히 서울시민의 안전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속 의견을 드림

<위원장>

- 많은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 적은 금액으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는 것 같음

- 그럼 사업지속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주셨던 사업성과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부분이라든지, 보고를 강화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추가로 의견으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음
- 사업지속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거수해 주시기 바람
- 만장일치로 사업지속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음

7.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제 추진

<○○○ 위원>

- 계속 사업연계를 조금 더 확충, 확대를 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면, 또한 특정요일에만 자동차를 사용을 하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마일리지나 승용차요일제 특약 등 보험회사 또는 기업과 연계해서 참여시민들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돌아가는 다양한 혜택을 조금 더 개발하고 확장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듦

<○○○ 위원>

- 서울시에서 다각도로 지금 추진 중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정책에 부합하다고 판단이 되고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시민의 관심과 사업 참여 의사가 높은 상황임 시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실천을 할 수 있는 사업의 접근성, 용이성이 높다고 판단됨

<위원장>

-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음 사업지속에 동의하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람
- 만장일치로 사업지속으로 결정되었음

8. 악취 방지 및 저감 사업

<○○○ 위원>

- 집행률이 85%인 이유가 궁금함

<○○○ 담당 팀장>

- 영세사업장이다 보니까 그것 자체도 자부담이 있다보니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음.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최종단계 12월 말까지도 '우리는 설치하겠다' 해 가지고 사고이월까지 시켰는데 최종적으로는 부담이 좀 어렵다 해 가지고 포기하신 분들이 나와 가지고 일부 집행을 못했음
- '16년 첫사업이고 예산에 비해 악취방지 시설의 성능이 아주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음. 올해 접수를 받았는데 7개가 접수되었을 정도로 민간참여도 활발함 일부 여유가 있는 사업자는 직접 자기들이 전액 부담으로 설치하는 사업장도 늘어남

<○○○ 위원>

- 경쟁률은 얼마나 되는지?

<○○○ 담당 팀장>

- 3대1정도 되나 선정되고도 못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음

<위원장>

- 사업지속에 동의할 경우 손을 들어주시기 바람
- 만장일치로 사업지속으로 결정

9. 행복한 불끄기 행사 지원

<○○○ 위원>

- 중요한 행사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3월 25일 날 세계적으로 10여년 전부터 해 오고 있는 EARTH HOUR라는 행사가 있음 이 행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소등행사를 하는데, 서울에서는 남산이라든지 이런 랜드마크 여기에서는 저녁 8시 반까지 9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소등을 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하는 행사임

- 또 하나는 8월 22일 날이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의 날이라고 정해져 있는 날인데 그날은 서울시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진행을 하루종일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소등은 시민들 불편 때문에 9시에서 9시 5분까지 5분간만 소등을 상징적으로 진행함
- 기후변화라든지 에너지절약 이런 면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행사고, 행사비용은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것을 각각 2천만 원, 1천만 원 해서 3천만 원을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임
- 예산 액수도 크지 않고, 행사가 상당히 세계적인 행사,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계속의견을 드림

〈위원장〉

- 사업지속에 동의할 경우 손을 들어주시기 바람
- 만장일치로 사업지속으로 결정

10. 공공기관 담장개방 및 녹화

〈○○○ 위원〉

- 요즘은 사회변화가 서울시정도 그렇고 변화가 있는데 그런 변화의 필요성이 있어야 할 것 같음
- 단순히 개방한다, 녹화한다 이것보다는 시민들이 함께하고 미세먼지도 저감하고, 좀 새로운 유형의 개방, 녹화사업, 이런 것들의 발굴 가능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위원〉

- 유명한 사업이고 성과도 컸고 언론에 이슈가 많이 됐었고 오래된 사업임
- 그러나 오랫동안 지속된 사업이다보니 지표개발과 새로운 방향성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일단 이 사업의 취지상, 그리고 사업이 매년 달라지고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드림

〈○○○ 위원〉

- 이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이번처럼 10몇 억을 잡아놨는데 그것을 그 해에 못 쓰고 그 다음 해로 넘어간다는지 해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할 성격이 아니고 그때그때 단위사업으로 해야할 것으로 보임

〈위원장〉

- 거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음
- 사업지속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람(두 분)
- 사업축소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람(두 분)
- 사업폐지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람(세 분)

〈위원장〉

- 과반수가 나와야 하므로 다시한번 거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음
- 사업지속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람
- 사업축소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람(여섯 분)
- 사업폐지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람(한 분)
- 해당사업은 사업축소로 결정함

11. 수목식재 사후관리

〈○○○ 위원〉

- 가로수의 자동관리, 자동관수시스템 반영 등 유지보수용역 업체 뿐 아닌 시민참여를 유도하여 관리하는 것도 제안드림

〈○○○ 위원〉

- 미국 같은 경우랑 보면 미국에서 녹지가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시애틀이나 시카고 같은 데를 보면 시민 1인당 비용이 250불 정도고 그런데 서울시는 한 40불 정도됨
-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하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디트로이트가

파산했을 때 녹지관리비용이 1인당 17불이였음. 그러니까 이 비용들이 축소되면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함

<○○○ 위원>

- 이 사업이 축소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겠지만 앞으로 관리를 좀 더 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판단됨

<위원장>

- 사업지속으로 결정을 하더라도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의견들이 다 첨부가 될 것임
- 사업지속, 축소, 폐지 중 더 이상 의견이 없을 경우 거수부탁드림
- 만장일치로 사업지속으로 결정됨

12. 민관이 함께하는 생물이 찾아오는 마을 만들기

<○○○ 위원>

- 서울시에서 생물다양성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후 시행하는 신규사업이고, 아직 사업이 안정화되지 않은 그런 단계로 보임
- 해당 부서 설명처럼 일부 환경적으로 예민한 갈등이 있는 지역의 그 신청단체에서 사업포기를 하여 평가점수가 좀 낮게 나오고 미흡으로 판정이 되었는데, 사업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위원>

-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녹색위랑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얼마 되지 않는 생태보전지구를 관과 민이 함께한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음

<○○○ 위원>

- ○○○ 의원께서 좋은의견 주셨음. 민·관이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은데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 점차 고갈되어 가는 그런 생태부분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되었으면 함

<위원장>

- 거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음
- 만장일치로 지속의견으로 결정하겠음
- 위원님 모두 고생많으셨음

【12시 15분, 폐회】

제5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 일 시 : 2018. 6. 29. 14:00~17:00
- ◆ 장 소 : 기획상황실 6층
- ◆ 참석위원 : 총 10명(민간위원 10명)
 - 민간위원 : 동원대 김한덕, 동덕여대 김진아, 카톨릭대 노연희, 카톨릭대 박희찬, 동원대 신후경, 남서울대 양숙미, 카톨릭대 오혜경, 홍익대 전춘화, 서울여대 정재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승아
 - ※ 간사 : 윤재삼 재정관리담당관, 보조금관리팀장 및 집중심의 대상사업 담당팀장(또는 주무관)
- ◆ 진행순서 : 위원 소개 → 회의 개최 → 폐회
- ◆ 상정안건
 - 지방보조사업 지속유지의 필요성 심의(여성, 복지)
- ◆ 회의결과
 - 심층심의 : 12개 사업 121억원
(지속 : 7개 사업, 135억원 / 축소 : 1개 사업, 2억원 / 폐지 : 4개 사업, 7억원)
 - 일괄심의 : 1차 평가결과 원안가결(148개 사업, 8,640억원)

위원 발언 내용

【14시 00분, 개회】

〈간사〉

-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위원 소개)
- 지난해 추진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실본부국 자체평가한 결과에 대해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회의하는 자리임
- 금일 대상사업은 여성·복지 분야 총 160개 사업, 8,761억원이며 이중 매우우수, 우수, 보통사업으로 평가한 사업 148건,

8,640억원은 일괄심의로 하고 심층심의 대상사업은 12건 약 121억원 정도임

-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신 민간위원 분들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음

<○○○ 위원>

- ○○○ 위원님 추천하고자 함

<간사>

- ○○○ 위원님을 만장일치로 하는 것이 좋은지?(위원 만장일치)

<간사>

- 그럼 ○○○ 위원님 오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개인 건별로 진행되는 것은 사업부서가 들어오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 이에 위원분들이 필요하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사업부서는 퇴장한 후, 이 사업에 대해 위원회에서 지속할지, 축소할지, 폐지할지 내부토론을 거쳐 의사결정 해주시면 됨

<위원장>

- 위원장을 맡은 ○○○이며 지금부터 2018년 제2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중 경제·일자리, 건축·지역개발 분야로 일괄심의 대상은 자체평가한 사업 중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사업 중 사업을 폐지하겠다고 한 사업 148개 8,640억원은 심의의 실익이 없어 일괄심의 하고자 함 이에 위원님 동의하시는지? (위원 전원 동의)
- 그럼 집중심의 대상임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 중에 사업을 계속하거나 축소하여 유지하겠다는 사업 12건에 121억 원에 대하여 지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 위원>

- 사업규모는 3억이나 되는데 사업내용은 세세함. 2012년에 처음 만들었을 때는 부모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었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면 그동안에 사업이 발달하고 조금 규모를 좀 더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커뮤니티를 결성하고 난 뒤에 그 커뮤니티가 얼마나 잘 활발하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함 따라서 축소의견을 드림

<○○○ 위원>

-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다른 사업과의 통합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 예산의 지원을 중단해도 될 것으로 판단함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폐지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음(이견없음)

2. 보육인의 날 행사지원

<○○○ 위원>

- 단순 행사성 사업은 앞으로 지양하고 뭔가 이용자나 시민에게 정말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이쪽 분야의 종사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행사에 참여할 시간도 없다고 판단됨
-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면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사업이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봄

<○○○ 위원>

- 하지만 이런 행사와 유사한 행사가 있는지, 표창이나 격려 차원에서 타 사업과 중복이 아니라면 1년에 한번 하는 행사가 없어질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움

〈○○○ 위원〉

-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이 행사이고, 각 지자체별로 자치권역별로 치르는 연합회 행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우수보육시설에 대한 표창이나 격려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로 전달하여 지자체별 행사가 있을 때 전달해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위원〉

-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가 중요하다고 봄

〈위원장〉

- 표창을 수여하는 부분은 지속하되 행사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겠음

3. 마을공동체 돌봄 지원

〈○○○ 위원〉

- 돌봄 주체자들의 전문적인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보수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함

〈○○○ 위원〉

- 열린 육아방이라는 것은 공동육아 나눔터나 이런 공간 확보하고 유사한 사업이지만 처음 1번에서 다루었던 부모커뮤니티 사업은 부모들의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것이었음
- 공간을 지원하는 것과 이 모임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은 좀 분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만약에 여기서 조건부 폐지라면 공간을 열린 육아방을 만드는 것은 아무래도 공동육아 나눔터라든지 이렇게 중앙부처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지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지만 부모들의 모임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함

<위원장>

- 의견을 달아서 지속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음(이견없음)

4.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아동학대예방센터 임시보호시설 설치(시비)

<○○○ 위원>

- 이 사업 자체가 사회적인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봄
- 원가족 복귀가 돼서 예산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사실은 긍정적인 결과라고 판단됨
- 다만 이런 치료를 더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연계를 통해서 서비스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을 제안함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사업지속으로 정리하겠음(이견없음)

7.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 위원>

- 전반적으로 사업 필요성 부분에서는 동의하나 2년 연속 집행률이 낮았기 때문에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유지하는 의견 드림

<○○○ 위원>

- 걱정되는 것이 설치해 주고 임대료 내주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 이 데이케어센터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가 되고 유지가 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 위원>

- 지원을 해 주는 대신 서울형 데이케어 이런 것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대신 서울형 데이케어에 맞는 수준의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러면서, 또 기존에 성당 같은

데서 하고 있는 노인센터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발굴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업그레이드시켜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표준화시켜라라는 이런 적극적이고 활성화를 하려는 의지가 필요함

〈위원장〉

- 사업의 유지여부 판단을 하도록 하겠음 이견이 없을 경우 사업의 지속으로 정리하고자 함(이견없음)

6. 민간 사회공헌사업 개발 지원

〈○○○ 위원〉

- 이 사업 자체는 사회복지협회의 본사업이라고 판단됨
- 스스로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예산을 확보하고, 유사사업이 많고 차별성이 적다고 판단됨
- 지금 현재 서울시 자원봉사센터가 상당히 이런 것을 잘하고 있음 이미 플랫폼 이 벌써 굉장히 잘 구축돼 가지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또 그런 것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업의 중복으로 보여짐

〈위원장〉

- 이 의견에 대해 다른 이견이 없으면 폐지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음(이견없음)

5. 아동안전보호

〈○○○ 담당 주무관〉

- 두가지 사업 중 하나는 어린이안전협의회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하나는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캠페인 사업임
- 어린이 안전협의회 사업의 경우 사업자체가 미흡한 것이 아니라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물품지원 등 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사업을 지속할지 고민이 많았으나,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더 목적에 맞다고 판단하였음

-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캠페인 사업은 반드시 지켜야 할 사업으로 1년에 그린리본 마라톤대회라고 해서 그린리본의 의미된 희생된 실종아동, 아니면 돌아오지 못한 실종아동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사업이며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서울시 유일의 사업이기도 함
- 이 사업은 1년 예산 1천만원으로 이정도의 파급력을 지닌 사업이며 그 의미와 사업 효과를 봤을 때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함

〈위원장〉

- 위원님 이견이 없을 경우 세부사업 중 하나는 폐지, 하나(실종아동 찾기 캠페인)는 유지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음

8. 종로탑골공원 주변 서비스 활성화 사업

〈○○○ 위원〉

- 대부분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사실은 문화생활을 즐기는 곳이 많지 않음 앞으로 이런 사업을 더 활성화해서 우리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 사회활동에 관심이 많아서 활동하는 일 중에 하나가 유익하고 일을 하는데 유교문화를 계승하는 향교의 어르신들을 보면 굉장히 좋은 자원을 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나왔으면 함

〈○○○ 위원〉

-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노인 분들이 모이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물론 구단위별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어르신들이 모였을 때는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유지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의 문화적인 상황 자체가 문화를 향유했던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노인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제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

- 그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폐지를 하는 것은 추후적으로 어떤 구단위 프로그램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수요가 욕구가 있다라고 하면 한꺼번에 폐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

〈○○○ 위원〉

- 탑골공원이라고 그러면 젊은 세대들에게 인식이 노인 분들의 결집장이고, 또 그 공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이 부각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일반 대중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계기도 필요함.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인식이 확산이 됐다 할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하고 다른 부서로 통폐합이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저는 유지했으면 좋겠음

〈위원장〉

- 이견이 없는 경우 사업지속 의견이 많음.
- 이견이 없으므로 지속으로 정리함

9.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 위원〉

- 좀 더 잘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공모를 통해서 다른 기관을 선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서 장애인 이용자가 너무 낮다면 진짜 달리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음.
- 특히 발달장애인부모회라든가, 연합회라든가, 단체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함. 하지만 지속적으로 향상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위원〉

- 복지부나 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과 중복이 아닌지 우려됨

〈○○○ 위원〉

-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 등 굉장히 어려운 부서이기는 한데, 그 문제를 잘 정리해서 개선할 점을 찾아주었으면 함

〈○○○ 위원〉

- 해당사업은 지속할 수밖에 없고, 기타 타 사업만큼의 결과를 바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음

〈위원장〉

- 이견이 없다면 지속으로 정리하겠음(이견없음)

10.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 위원〉

-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재활서비스가 지자체 중심으로 되게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말하는 상담이나 직업연계, 취업연계 등은 장애인단체활동 행사 지원하는 사업의 성격으로 보임

〈○○○ 위원〉

-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와 예산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위원장〉

- 폐지의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보임. 이견이 없을 경우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음(이견없음)

11.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12. 은평장애인복지관 건립

〈○○○ 위원〉

- 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지속의견임. 기존에 장애인복지관에서

가족지원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업내용도 중복성이 많은데, 이미 서울복지재단에서 이것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 해 가지고 단순 단체보조금사업이라기보다는 이미 전국 단위와 시 단위에서 광역과 기초를 아우르는 사업적인 성격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하나의 단체가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을 맡는 것보다 다양한 단체가 진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제안드림

<○○○ 위원>

- 은평구 엔젤스해브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그 복지관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듦

<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사업을 지속하자는데 동의와 재청이 있으므로 사업의 지속으로 결정되었음

<○○○ 위원>

- 은평구복지관의 경우 1년간 주민설명회 등 협의의 기간으로 사업이 지연된 측면이 있었으므로 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위원장>

- 은평구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도 사업지속으로 결정하는 데 재청이 있었음. 이견이 없으면 지속으로 결정하겠음

10.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위원장>

- 장애인재활지원센터의 교통부분은 폐지로 의견을 냈는데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도 안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맞아 심의 의견을 내달라는 의견이 들어옴

<○○○ 위원>

- 해당 센터는 비교적 큰 단체이고 상당히 오랜기간동안 지속된 단체임 이 사업은 앞선 장애인 단체 지원과 다소 유사한 성격이라 판단됨

장애인 단체의 지원을 계속해야한다는 맥락으로 지속의견을 드림

〈○○○ 위원〉

○ 타 장애인센터 지원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됨

〈○○○ 위원〉

○ 서비스의 중복적인 부분에서는 폐지의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위원장〉

○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거수를 통하여 결정하겠음

〈○○○ 위원〉

○ 장애인은 다른 대상자와 다르게 사회적으로 훨씬 더 취약하기 때문에
미흡하더라도 개선하고 장려하여 하는 차원이 크다고 봄

〈○○○ 위원〉

○ 해당 사업은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 장시간 수고 많으셨음

【16시 38분, 폐회】

● 제6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 개최